

# 고개드는 금리인하론... “0%대 물가, 경제위축 불러”

## 조동철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

디플레이션 위험 커질 수도 있어  
저물가 악순환에 미리 대비해야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0%대에 머물러 있는 물가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며 저물가의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물가안정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적으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6명 중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한은이 2017년 11월, 2018년 12월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때도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조 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구조적 물가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순환의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높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2000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포인트 하락했는데 하락 폭의 절반가량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2012년 이후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타깃팅’ 정책이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장기금리가 연 0%대에서 멀지 않은 수준까지 하락해 전통적인 금리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없이 장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경기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복잡다기한 금융시장 전체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경우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은 보수적·비대칭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어렵게 함으로써 저금리 환경을 더욱 심화시키는 축소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을 증대시키게 된

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또 조 위원은 금융안정은 금융당국에 맡기고 한은은 일차적 책임인 물가안정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한다”며 “반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제는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목표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르고 있다”며 “낮은 물가에 대해서는 통화당국 외에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8일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송파구 구립 어린이집 원생들이 구내 경로당을 찾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엄중한 상황”

## 경제활력대책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경예산, 타이밍과 속도 문제  
계류 법안 하루 빨리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는 만큼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대책을 두고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류 확산에 한국 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늘었다”며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시스템, 수출 유망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결산법인 배당 집중... 규모 축소 가능성도

>> 1면 ‘반도체 부진 등 수출...’서 계속

중국인 관광객 등 입국자수 증가로 여행수입(38억7000만달러)이 전년 대비 3억7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여행지급(74억4000만달러)은 10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 ◆경상수지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

상품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액 송금이 집중되는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 단계에서 4월 경상수지의 흑자나 적자를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4월 중 경상수지가 일시적 소폭적자나 소폭흑자에 머물 가능성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결산법인 배당이 집중되는 4월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며 “4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41억2000만달러로 발표됐는데 전년 동월의 61억6000만달러 대비 축소된 것인 만큼 4월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월 경상수지는 48억2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12년 5월 이후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지난해 3월(51억달러)에 비해서는 흑자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3월 수출이 479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4%(49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94억7000만달러로 9.2%(40억1000만달러) 줄었다. 상품수지는 84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3월 중 서비스수지는 23억4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3월(22억6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이 3월 중 특허권 사용료로 3억~4억 달러를 지급한 여파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9억5000만달러)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3월 여행수지 적자는 5억7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일본인,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 입국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증가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김희주 기자 hj89@

## 제58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5월 15일~6월 5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4주차는 6월 4일(화) 6월 5일(수)

● (주말반) 2019년 5월 18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음션) : 300,000 → 130,000원  
5월26일(일), 6월 2일(일), 6월 4일(화)

김대영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http://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